

1956. 4. 22. 창립
(교회창립주일 4월 넷째주)
2026.09.20.(제3772)

아현중앙교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29길 11(북아현동) (03773)
·Tel. 363-1452 ·Fax. 393-8148
·목사관. 717-2050, 365-2051

순교자의 영성을 이어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신앙의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

가을의 기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落葉)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謙虛)한 모국어(母國語)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肥沃)한
시간(時間)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호을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百合)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 김현승 -



기독교
대한감리회 아현중앙교회
AHyun JoongAng Methodist Church

담임목사 권오진

Senior Pastor O Jin Kwon

www.ajmc.or.kr

주일아침 예배순서

1부 7:00
2부 11:00

성령강림 후 제17주

집례: 권오진 목사
오석만 목사
손민승 목사

오르간전주.....반 주 자 ※신 앙 고 백....사도신경.....다 같 이
※입 레 송... 64장(1,3절) ...다 같 이 ※영 광 송..... 3장다 같 이

※예배의부름.....집 레 자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이르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시 105:1)

※경 배 찬 송..... 9장다 같 이 기 도.....이평식 장로
※공동의 회개기도.....다 같 이 주기도영창.....635장.....다 같 이
현 금.....다 같 이

두려움에 숨어 믿음을 감추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믿고 십자가를
지며 끝까지 따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름으로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 독 문... 67번(잠언 3장) ...다 같 이 ※봉 헌 송... 211장(1절)...다 같 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
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
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자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 나무라 자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 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목회·봉헌기도.....담임목사
성도의교제 평화의 인사, 교회소식 다 같 이
성 경 봉 독.....조미숙 집사

구 약 | 이 사 야 50:7-8

신 약 | 마 가 복 음 8:34-38

찬 양.... 내게 오라찬 양 대
중 언.....권오진 목사

『 숨을 구석에서

믿을 구석으로 』

결단의 찬송과 기도.....다 같 이

※복 의 선 언.....담임목사

※후 주.....반 주 자

※표에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 선교회 월례회

다음 주: 목장별 목장모임

젊은이예배

오후 2:00, 중예배당

지난 주 통계

예 배		교 회 학 교	
주 일 1 부 예 배	38	영 아 부	7
주 일 2 부 예 배	278	유 치 부	16
주일실시간방송예배	49	유 초 등 부	20
목 장 모 임	233	중 · 고 등 부	20
수 요 성 서 연 구	51	청 년 부	18
수요실시간방송예배	9	예 수 소 망 반	28
금 요 성 령 집 회	48	생 명 의 삶	14
금요일실시간방송예배	23	주 일 성 서 연 구	방학
합 계	729	합 계	123

현 금			
주 일 현 금	1,769,000	감 사 현 금	1,820,000
교회학교현금	169,500	생 일 현 금	220,000
월 정 현 금	2,420,000	선 교 현 금	120,000
십 일 조	5,010,000	창립70주년현금	160,000
합 계 11,688,500원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중예배당

월 - 화 시편 강해
손민승 목사

수 - 목 레위기 강해
권오진 목사

금 - 토 히브리서 강해
오석만 목사

수요성서연구

9월 23일(수)10:30, 손민승 목사

사무엘상·하 4
“나의 형제들아”

본문: 사무엘상 30장 21-31절

- 금 주 기 도 : 교 역 자
- 다음주기도 : 제7여선교회

교회학교 장년부 모임

주일 오전 10시 주일 오전 8:10

주일성서연구 예수소망반

박지연 전도사

방 학 중예배당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1 부 예 배	주 일 오전 7:00	대 예 배 당
2 부 예 배	주 일 오전 11:00	대 예 배 당
첫 단 추 기 도 회	첫째 주일 오후 2:00	대 예 배 당
새 벽 기 도 회	월-토 오전 5:30	중 예 배 당
수 요 성 서 연 구	수요일 오전 10:30	중 예 배 당
금 요 성 령 집 회	금요일 오후 8:00	중 예 배 당
장 년 부	주 일 오전 10:00	대 회 의 실
영 아 부	주 일 오전 11:00	영 아 부 실
유 치 부	주 일 오전 11:00	유 치 부 실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11:00	유초등부실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11:00	중 예 배 당
젊 은 이 예 배	주 일 오후 2:00	중 예 배 당
예 수 소 망 반	주 일 오전 8:10	중 예 배 당
목 장 모 임	매월 둘째, 넷째주 주일예배 후	목 장 별

9월 예배봉사인원

구 분	1부	2부
헌금위원	장춘기 문정이	정미애 이경희A 김성욱 이현희 안현수 심수현
안내위원	최명애	
강단헌화	(김동수 전순남) (장춘기 문정이)	
수납위원	김동수 심영관	
통계위원	김기석 안대형 이평식 조규성 김명훈 이성호	

지난 주일 증언

“물이 끓어야 밥이 됩니다”

구 약 시 편 40:1-2

신 약 요 한 복 음 5:1-9

설 교 : 권 오 진 목사

오늘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당시 유대인의 명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흥겨운 축제의 열기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화려함 뒤편에서 조용히 한숨짓는 이들이 모여 있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베테스다’라는 연못가입니다. 그곳에는 오랜 세월 동안 오직 연못의 물이 동하고 움직이기만을 간절히 바라보며 누워 있던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 베테스다 연못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곳에 누워 있던 한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베테스다로 찾아오신 하나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려든 예루살렘 성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축하 인사를 건네고 먹고 즐기며 축제의 기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화려한 축제의 분위기에 매몰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축제의 함성과 환호소리 뒤편에 가려진 가장 외롭고 불쌍한 이들이 신음하는 ‘그늘진 곳’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시는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사람이 찾아오기만을 무심하게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Waiting God)’을 넘어 ‘찾아오시는 하나님 (Seeking God)’이신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무에게도 말 못 할 마음의 고통과 아픔, 실패의 상처를 안고 계십니까? 세상의 잔치에는 내 자리가 없는 것 같아 외로워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테스다의 모순

예수께서 찾아가신 곳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테스다’라는 연못이었습니다. ‘양문 (Sheep Gate)’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먼저 수축했던 문으로, 성전에 바칠 양들을 매매하던 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곁에 있던 연못의 이름이 ‘베테스다’였습니다.

‘벧’은 ‘집’이요, ‘에스다’는 ‘자비’ 혹은 ‘은혜’를 뜻합니다. 즉 베테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신성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3절과 4절에 기록된 그곳의 실상은 참으로 모순적이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이 연못가에 모여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이든 고침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는 괄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경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후대에 삽입된 설명이라는 뜻입니다. 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이 구절은 고대 온천수 지대의 현상을 바탕으로 내려오던 ‘전설’을 기록한 것입니다. 간헐천이 솟구쳐 물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단 한 사람만 낫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아마 그 연못에서 어떤 피부병 환자가 나을받은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동할 때 재빨리 몸을 던져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 이겠습니까? 혼자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곳에 누워 있는 사람들은 누구 입니까? 앞을 못 보는 맹인, 걸을 수 없는 다리 저는 사람, 몸을 가누지 못하는 중풍병자들이 있습니다. 맹인이 어떻게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며, 다리 못 쓰는 사람이 어떻게 달려가겠습니까? 중풍병자가 몸을 굴려 연못에 도달했을 때는 이미 건강한 사람이 몸을 씻고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1등만 살아남는 치열한 생존경쟁, 조건이 갖춰진 자만 치료받을 수 없는 무한 경쟁의 현장! 이것이 어찌 ‘자비의 집’일 수 있겠습니까?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의 탈을 쓴 ‘잔인한 무한 경쟁의 현장’이었습니다. 정작 도움이 절실한 자는 들어갈 수 없는 무자비의 집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라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인생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면서도 무한경쟁의 현실에 내던져진 채 날마다 탄식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물이 동하기만 하면 될 텐데...”

“남들처럼 돈이 생기고, 좋은 환경이 갖춰지고, 누군가 나를 밀어주기만 하면 될 텐데...”

환경을 보며 절망과 좌절, 포기과 낙심, 바로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현장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바로 그 절망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연못 주변의 무리들은 저마다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며 눈에 불을 켜고 있었기에, 정작 은혜의 주님이 곁에 오셨음에도 아무도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누워 있던 한 사람을 유심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다가가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얼마나 엉뚱한 질문입니까? 38년 동안 병에 갇혀 있던 사람에게 “낫기를 원하느냐”니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지금 장난을 하느냐”고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었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환자의 눈에서는 이미 희망의 빛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저 매일 연못가를 바라보며 수동적으로 누워 있을 뿐, 마음의 열망도, 회복에 대한 기대도 다 죽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질문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지 마라. 네 심령의 물이 동해야 하느니라!”

“세상의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리지 마라. 오늘 나를 향해 네 마음의 물이 움직여야 하느니라!”

여러분, 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은 세상의 물이 동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내가 고침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동해야 할 것은 환경의 물이 아니라, 내 심령의 물입니다. 내 심령이 끓어올라야 기도가 익어 응답이 되고, 거룩한 소원이 끓어올라야 삶에 기적과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0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계십니까. 근거없는 소문만 믿고 무한경쟁 사회 속에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의 무기력과 실패의 자리에서 진짜 일어서기를 원하느냐?”

“너는 참으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나 예수 한 사람으로 네 마음이 끓어오르고 있느냐?”

단 한 사람(One Man)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님의 도전적인 질문을 받은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원문의 의미를 살려 이 말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I have not a man!” (단 한 사람도 내게 없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서 계신 분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를 저 베테스다 연못에 조금 빨리 던져줄 ‘도움 주는 조력자 한 사람(One man)’ 정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자 유일한 구원자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세상의 목적(베테스다 연못)에 도달하기 위해 나를 조금 도와주는 ‘조력자’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또 이용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병자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아직도 미신 같은 전설을 믿고 있느냐?”,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도와줄 단 한 사람도 없다”며 절망하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망의 줄이 끊어진 바로 그 자리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시작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연못의 물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조건을 바꿔주신 것도 아닙니다. 대신 그의 심령을 향해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8절)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던 38년의 비참한 삶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의 연못과 사람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나를 찾아와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발을 내딛었을 때, 단단히 굳어 있던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그를 38년 동안 묶어두었던 실패의

자리를 스스로 딛고 일어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베테스다 연못’을 바라보며 서성이고 계십니까? 어떤 세상의 조건이 갖춰지기만을,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만을 기약 없이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참된 변화는 세상의 물이 동할 때가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내 심령의 물이 동할 때입니다. 물이 끓어야 밥이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내 마음이 끓어오를 때 기적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며 환경을 탓하고 타인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며 “네가 낮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의 온 마음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세상의 물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끓어오릅니다. 내 삶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손을 잡고 긴 절망과 실패를 털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송과 감격의 삶으로 걸어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 금

십 일 조 헌 금 (권혁성 손양민) (김준수 최희성) (최태성 김지예) 고원옥 (김선옥 구용연) 노선우 노현우 성시온 여혜경 윤정환 (이동일 최은주) 이정분 (이정실 황문연) 임명숙 전명숙 (전상주 최옥자) 최경애 허지영

월 정 헌 금 (심대섭 류은숙) (강성배 박봉주) (고영천 임선영) (김성옥 이현희) 김소희 (김종근 이연석) 김지민 (김진태 이미옥) (노정훈 안명숙) (박정화 조인자) 박천숙 (손희열 윤순례) (송성범 최명애) (신영수 유경순) 유명순 유윤자 (이능하 김기열) (이성수 이호영) 이찬주 이해수 이휘찬 (장성옥 김아영) 홍완숙 홍윤기

감 사 헌 금

(권오진 조고은) : <생명의 삶> 제3기를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 내려주소서.

(김기석 나영임) :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박기순 :故임원길 권사의 추도일을 맞아 온 가족이 추모예배를 드리며 천국의 소망을 더욱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박법택 윤옥희) :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유경희 : 생명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홍영기 :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정희A :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셔서 안 아프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손들 믿음의 삶과 영육의 건강과 일터 위에 함께 해주세요. 이 백성 지켜주세요.

고광섭 :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감사드립니다.

권원자 : 전교인수양회를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권호진 정장미 온유 소유) :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진 장미 온유 소유의 미래를 책임져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갈경은 :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선 :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김카시아 :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영식 정명자) :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박정숙 :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배덕천 김유임 성진) : 주님 아들 출장 가는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백배의 결실을 맺고 오게 하옵소서. 주님 항상 동행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아멘.

(손희열 윤순례) :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송성범 최명애) :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송주영 : 모든 식구 건강하고 뜻하는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주심 감사합니다.

신재신 : 생일맞이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경순 :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유영순 : 손녀 결혼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순희 :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윤진 :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를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은선 : 건강하게 생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재화 홍석은) : 진영현, 이세빈 결혼식을 많은 축하와 축복 가운데 은혜롭게 지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정임 :故김인수 추모예배 감사합니다.

차용분 : 생일감사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81년 동안 건강 지켜주심에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차정옥 : 에벤에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은주 : 범사에 감사합니다.

황공자 : 베풀어주신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 명 : (주님의 것 드립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겸손히 섬김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생 일 헌 금 신재신 이은선 차용분 홍완숙

선 교 헌 금 노정훈 오혜리 윤정환 (이정실 황문연) 이한나

특 별 헌 금 강단현화 박기순 (곽찬웅 한애선) 이진숙 최난주 (장춘기 문정아) (최명수 김다유)

성도의 교제

■ 교회소식

- 추석가정예배순서지 :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추석연휴예배안내 : 24일(목)~26일(토) 새벽기도는 온라인으로 드리며, 25일(금) 금요성령집회는 추석으로 쉽니다.

■ 모임안내

- 총남녀선교회 주관 추석맞이 사랑나눔바자회 : 오늘 오전 11시 예배 후, 1층 로비에서 있으며, 교회 앞마당에서 민속놀이가 있습니다.(여선교회 월례회는 사랑나눔바자회로 대신합니다)
- 제7남선교회 월례회 : 오늘 오전 11시 예배 후, 소예배당(지하1층)에서 있습니다.
- 제6남선교회 월례회 : 오늘 오후 1시, 회의실2에서 있습니다.
- 한나회 모임 : 오늘 12시 40분,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 교회학교 부장단회의 : 오늘 오전 8시 40분, 회의실2에서 있습니다.
- 장학위원회 모임 : 오늘 1시 30분,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 엠마오가는길(KOWE#125 남) : 10월 4일(주일) ~ 7일(수) 광림세미나하우스에서 있습니다.

■ 교우동정

- 감사 : 익투스, 메나렘 찬양단을 후원해주신 총여선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온라인 헌금

019601-04-344912 (국민은행, 아현중앙교회)

헌금 내용(헌금자명+헌금종류)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새가족(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6-04. 장지홍 집사

26-05. 김주현 집사

-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은 안내석에 등록해주시길 바랍니다.

◆9월 중 행사

- 목장모임 : 27일(주일)

■ 금요성령집회는 추석 휴일로 쉽니다.

■ 주일아침예배(9월 27일)

대표기도

조상현 장로

■ 주방봉사

- 이번 주 : 3초원
- 다음 주 : 2초원

■ 교회를 섬기는 분들

- 원로목사 윤병상 백구영 손운산 이선균
- 부담임목사 손민승 오석만 김선아(부분)
- 수련목회자 송호준
- 전도사 박지연
- 교육전도사 서지수

- 소속목사 김재성 장재호 김희진 남기정 정영준
- 성가지휘 김정희 김병일
- 반주 최소연 이진경 박경아 황영진 김수빈